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오늘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고
시정발전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 한해는 명암을 달리한 많은 일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97년말 외환위기를 맞았을 때

IMF 국제금융을 받아야만 했던 국가부도 위기상황을
최단시일내 졸업하고 세계적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투자등급으로 상향조정하여
대외 신인도를 높이면서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대등한 위치를 회복한 것은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금년 6월에 개최된

한일월드컵대회와 부산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IT강국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남북경협사업으로 성사가 된

경의선과 국도1호선 연결공사로

우리시가 동북아 경제·물류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광복이후 우리에게 가져다준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난 여름 태풍 루사와 함께

전국적으로 수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가져온

미증유(未曾有)의 수해와

안성에서 발생하여

용인·진천지역까지 확산된 구제역, 그리고

최근의 강화·김포지역의 돼지콜레라는

우리에게 시련과 함께 유비무환 정신을 새삼 일깨워준

교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련앞에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시민 모두의 단합된 힘과 저력은
이같은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그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단위 자치경영혁신대회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을 비롯하여
공공근로사업 중앙평가 우수·경기도 최우수,
민원행정·농림사업 경기도 우수상 수상 등
시정평가 17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24만 시민과 함께 땀흘려 일한 보람입니다.

지난 여름 수해 때 바쁜생업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자원봉사자, 기관·단체에서 수해지역을 찾아
수재민들에게 절초보은의 정신을 발휘하여
전국민의 찬사를 받은 일 또한
잘 단합된 파주인의 모습을 보여준 자랑입니다.

이같은 우리의 저력은
그간 훼손된 파주의 이미지를 말끔이 씻고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파주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민 스스로 보여준 것입니다.

모두가 무리라고 생각했던
제3땅굴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 직접 협상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의결 등 많은 난제를 해결하면서
월드컵개막 이전에 성사시킨 일은
자신감에 찬 경영행정의 결과입니다.

그간 담보상태에 있던 대학유치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끈기있게 설득한 결과
지난 11월 교육부총리의 결심을 이끌어 내고
현재,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시켜
대학 불모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첫 계기를 마련한
값진 성과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공사착수 후 8년동안 장기간 끌어왔던
공설운동장 건설문제에 대해
사업성 분석을 원점에서 접근하고
준공시한을 확실히 정한 것은
기업가적 경영기법을 시정에 접목시킨 한 사례입니다.

저는 파주시 공직자들이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사고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고객인 시민에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주는 대원칙 아래
경영마인드를 시정에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보단계에 불과하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은

주부가 가게부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생각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투자사업에 경영성 분석을 제도화한 것은

경영마인드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내년초 市の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1박2일 일정으로 경영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시정의 경영화를 위한 인식과 발상의 전환으로

시민에게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昨今の 세계경제는

IT산업의 급속한 발달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직접 백화점이나 외국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살수 있고
미국이나 유럽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Global 정보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10여년간 경제불황의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 미국과 유럽도 경제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세계경제 전반에 걸쳐 침체 기로에 있는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국이 상상외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가
세계물동량의 30%를 차지하고 있고
EU, NAFTA와 함께
세계3대 교역권의 하나로 그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우리市는
장차 동북아時代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파주」를 만들기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적어도 21세기에는

우리 파주가 대한민국 접경지역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속의 경제·물류 중심지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파주의 눈높이를 세계화에 맞추고
세계와 경쟁해야하는 자력의 힘을 키워나감으로써
의지하지 않고 사는 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반듯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민선3기 시정의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내년에는
대내·외 환경변화를 적극 수용하는 한편,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과주의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3년도 새 해에

추진할 역점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북아 경제·문류중심 지역으로의 기반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남북경제협력사업의 가시적 성과인

경의선 철도와 국도연결 공사가
활발히 진전되고 있는 것은
갈라진 민족의 동맥을 잇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남북간의 사회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 종단철도가

유라시아대륙 횡단철도와 연결되는 철의 실크로드를 통해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우리市가 선도적 위치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장차,

남북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예상되는

유입인구의 효과적 수용과 교류공간 입지를 위하여

인구 10만명 규모의 배후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최적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는

물류중심 결절지점인 임진강역 일대에

남북교류 복합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개성경제특구와 연계하여

중간부품의 생산거점산업을 주도할 50만평 규모의

첨단국가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시의 계획에

경기도가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용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는
이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 년차적으로 반환예정에 있는
미군공여지 6개소에 대하여는
파주시의 장래와 직결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북아 경제·물류중심지로 나가기 위한
시설물 유치에 합당한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해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파주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첨단을 지향하는 경쟁력 우위의 자족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도시개발은 기본계획에 의하여
개발수요에 단계별로 대응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개발을 원칙으로 세워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고
기반시설을 넉넉히 갖춘 경쟁력있는
자족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의 개발사업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통한 부분적 개발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일반 주거개념으로만 개발이 진행되어
불균형·난개발의 원인이 된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는 일반 주거개념에서 탈피하여
주거·산업생산·문화·복지 등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첨단도시환경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 통일에 대비한 도시컨셉을 그려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속한 인구증가와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파주시 도시교통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장래 교통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대응할 수 있는
교통기반을 마련함과 아울러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망 확충과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교통체증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국도 37호선과
자유로-조리간 국지도 56호선을 비롯한
계속사업에 대하여는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적극 지원하면서

특히, 국지도 56호선이
법원읍까지 앞당겨 확포장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통일동산 진입도로와
성동-금산간 도로확장사업을 마무리하여
자유로와 연결되는 주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상습 교통체증 구간인 삼다리-벽산APT간,
순달교-파라다이스APT간 도로확포장 사업과
당동-통일로간, 선유광장개설, 광탄 신산 도시계획도로,
대원-설문간, 장릉진입로 확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면서
계획된 도로, 하천, 교량 등 35개 사업과
수해예방·복구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양중인 금파·오산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공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기존 산업단지와 차별화 된
첨단문화컨텐츠 산업단지와 국제적인 대기업을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230억원,
특례보증 32억원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향토기업을 중점육성하면서
중소기업 인터넷 쇼핑몰구축, ISO인증획득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미주·유럽지역을 市長이 직접 방문하여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며
기업유치육성기본계획을 수립, 기업인들이 가장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농업부문은

「뉴라운드」라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
국가보호산업에서 시장경제산업으로 전환되는 등
우리의 농업여건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남아도는 쌀 문제는

우리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정환경 변화를 직시하여

「논농업직불제」 지원단가가 상향되도록 힘쓰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실시로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유통단계와 유통마진을 축소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농협하나로 마트의 우리 농산물 판매를 77%로 확대하고
기업체, 학교, 대형음식점에

우리농산물 판매를 촉진하는 등

연간 750억원의 직거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채소특작류·화훼류·가공식품 등

우리의 수출전략상품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연간 280만불 수출을 목표로

농업의 시야를 점차 해외로 넓혀나가겠으며

안정적인 축산업발전 기반구축과

어촌체험관광단지를 조성하여

어민의 소득을 배가시키는 한편,

동물방역관리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구제역 등 가축방역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파주쌀 소비촉진을 위하여
고품질화와 고유브랜드화를 추진하고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포장재지원사업을 지원하며
대형유통업체인 SM마트와 제주도 판매진출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농촌체험 그린투어를 실시하고
동북부지역에 산촌마을 1개소와
자연과 생명을 테마로 한 특화마을을 조성하여
복합농업에 의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셋째, 다양하고 질 높은 생산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더불어 다함께 잘사는 사회,
우리 市政이 가야할 최대의 목표이자 과제입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늘이 짙듯이
형편이 나아질수록 우리가 보살펴야 할 이웃들의 소외감도
그만큼 깊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염두해 두고
세밀하고 다양한 복지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생계·의료·교육 등
기초생활안정에 중점을 두면서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틈새 계층에 대하여도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노인복지는 노인들이 스스로 여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푸른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는
경로연금과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 독거노인에게는
사랑의 효친아파트에 입주토록 지원하는 한편
노인들의 사회참여확대와 건전여가 활동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년도에는
금촌 2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현대식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착수하고
노인전문 실비요양시설 1개소를 신축하여
노인의료서비스를 提高하겠습니다.

장애우 계층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보장된 장애우 편의시설을 재점검하고

장애우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APT를 구입토록 지원하여

저소득 장애우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면서

시각장애우 심부름센터 운영과

장애우복지회관 재활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장애우 화장지공장을 활성화하여

자립기반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교육은 호연지기를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많은 청소년들이 애용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기찬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분위기를 일신하겠으며

시립도서관을 착공하여

청소년의 문화·복지 Center를 마련하고

금촌택지개발지구내에 인라인 스케이트장과

인라인 도로를 개설하는 등 청소년의 놀이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경제·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취미활동의 기회를 넓혀 나가겠으며
여성회관의 교육프로그램을
53개 과목으로 확대편성·운영하고
자원봉사활동 등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는 여성공직자들의 자녀보육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청의 직장보육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여성발전기금도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환경·문화·관광이 조화된 고품격의 기능도시로
가꿔나가겠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갖고 있는 최고의 자원은
바로 온전하게 보전된 지역 환경입니다.

그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환경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지켜온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며
푸른파주21 등 환경NGO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임진강의 수질은
경기도에서 2004년까지 실시 예정인
임진강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과 연계하면서
市 차원에서 추진중인 적성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 상반기중에 가동시키겠으며
금촌·문산·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장은
민자유치를 통하여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발주하여
기존 표준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처리 불가능한 원수를 정수처리하여
생수처럼 마실 수 있도록
맑은 물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가고
13개소의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급수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정수장에서 나온 수돗물은 ISO인증을 취득하여
국제적 환경수준을 맞춰나가면서
원수 및 정수과정의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하고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공표토록 함은 물론
관내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보건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 문화축제인 율곡문화제는
道民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혜음원사지 복원정비,
짚풀문화공예품 공모전, 임진강 통일연날리기,
전통민속놀이공연 등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지역문화 계승·보존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1단계사업 준공을 계기로 「책의 도시」로 선포하고
Book-Festival을 개최토록하여
“문향의 고장”이라는 옛 명성을 되찾고
세계적인 Book-City로 만들어나가
책을 Item으로 하는 문화관광 명소로
우리市를 알려 나가겠습니다.

또한, 헤이리아트밸리를

국내 최초의 특화된 생태·문화·예술마을로 조성하여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특색있고 매력적인 문화·예술밸리로 만들어

내·외국인이 찾는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흔히, 21세기는 고부가가치의 공해없는 산업,

문화산업이 국력을 좌우하는 사회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산업을 전략화하여

파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임진강 유역과

DMZ의 풍부한 생태·평화자원을 활용한 개발전략으로

추진중에 있는 평화·생태공원과 장단반도 도립공원,

그리고 평화관광의 시금석이 될 도라산 평화공원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완공한 제3땅굴 관람시설의

수용인원을 더욱 늘려 나가기 위해

역갱도를 개설하여 비무장지대 관광수입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유치는 우리市的 최대 숙원사업입니다.

그간 공들여 노력한 가칭, 웅지세무대학이

지난 11월 교육부총리의 재가 후

건설교통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어
조만간 가시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법인설립허가를 받는 대로

내년초에 첫삽을 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면서

신흥대 분교설립 추진을 위한

관·학 협정서 체결을 계기로

교육관 형태에서 정식분교 규모로 입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

시민휴식과 여가활동 공간확충을 위해

기존 산림욕장 7개소에 대하여 시설정비를 완료하고
산림욕장 2개소, 근린공원 1개소를 신규조성하면서
읍·면단위 체육공원을 늘려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03년 재정운영방향입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국가경제는 6%대의 성장과 100억달러에 가까운 무역수지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공격설이 자주 대두되면서 유가와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등 대외 경제여건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市는 금번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세수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택지개발 등으로 세입재원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그간 해결하지 못한 현안사업과 계속사업의 투자부담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투자사업은

- 1) 신규·자체사업보다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했으며
- 2) 하수종말처리장건설 등 대규모사업은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3) 시민 삶의질 향상을 위한 숙원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새해시정 방향에 따라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2,862억원으로
2002년 당초예산보다 5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재원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도비 보조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입부문에서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53.1%로서 재정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잠시 후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찬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설명드린

2003년도 시정의 정책기조는

내년 한해의 업무계획 뿐만 아니라

세계로 도약하는 파주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접경지역 그리고 수도권정책의 과도한 규제 등으로
반세기 동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대내·외적인 여건변화로 발전의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분명, 21세기는 파주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동북아 경제중심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축이 우리市에 있다는 것은 복받은 땅 파주를 위해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통일한국의 중심도시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희망의 도시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광된 파주의 미래를 위해
“보다 크게 보다 멀리” 우리의 생각과 이상을
넓혀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900여 공직자들은
큰 변화의 중심에 서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24만 시민과 함께 파주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파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2월 5일

파 주 시 장 이 준 원